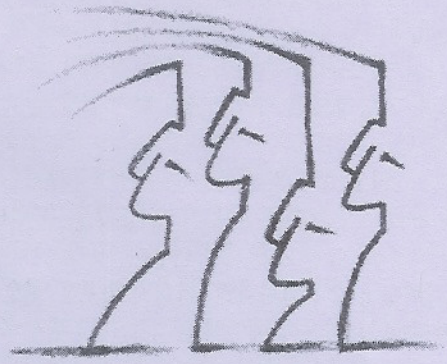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4주일 (성요셉 성월)
제27권 16호 (다해) 2007·3·18

[묵상]



형제

똑같이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니

사람의 삶에는 노자(勞者)도 탕자(湯者)도

모두 생나무 가지에 걸린 살점인 걸

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랑을 어찌 알리요.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213)458-0396

미사

수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평 일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오전 8:30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오전 7:30
	주일학교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백삼위 신앙학교(3단계 종료)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이야기 성서반	오전 10:3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오전 9:30
	성 시 간 (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성령 기도회	오후 8: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금 요 일	이야기 성서반	오전 9:30
	M. E. Sharing(3째주)	오후 7:00
	울뜨레아 (4째주)	오후 8:00
	십자가의 길	오후 7:30
토 요 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오후 6:00
	복사단 모임 (첫토요일)	오후 5:00
	배론 청년모임	오후 5:00
주 일	병자 영성체	오전 중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00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오후 1:00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유철희 바오로 (310)320-3697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미사 지향

토 요 특전미사	(연)성세근 요셉
	(생)방세혁 분도, 신덕례 데레사
주 일 낮 미사	(연)신임순 안나, 심태순 데레사, 김형진, 조남선, 김정희 김기하 요셉과 이희자, 김창배 파스칼, 이인순, 박원호 정윤 요셉, 데니스웨버,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생)권순봉 요안나, 오호순 모니카와 박순자 안젤라 박요셉과 유안나, 이종민 요셉, 권진열 피데스 가정 김종렬 베드로 가정, 최영신 프란치스코와 글라라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여호수아기 5,9ㄱㄴ.10-12

화 답 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전례성가 66 사순 제4주일 C해>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영혼아 주님안에서 자랑해보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하라.⊙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라
우리함께 그 이름 높여드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나를 들어주시고
온갖 무서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우러러 주님을 보라 기꺼우리라
너희 얼굴 부끄럼이 있을 리 없으리라
보라, 가엾은 이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씻어주셨도다.⊙

제 2독서 코린토 2서 5,17-21

복음환호송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찬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복 음 루카 15,1-3.11ㄴ-32

영성체송 아들아,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고 기뻐해야 하지 않느냐.

오늘의 성가

	토요특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 ~ 58	
입당	157	157
봉헌	265	265, 255
성체	289	289, 281
파견	150	150

전례 상식 코너

● 사순 제4주일 - "래따레" (laetare; 즐거워하라) 주일 ●

사순 제4주일은 전통적으로 "래따레(laetare) 주일"이라 부른다. 사순시기가 한창인 사순 제4주일에 '오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극기와 참회, 그리고 육신의 재계로 시작된 은총의 사순시기가 이제 그 반을 넘어 가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거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늘 사순 제4주일을 "래따레(laetare; 즐거워하라) 주일"이라 부르며, 사순시기의 반환점에서 자칫 지쳐버릴 수도 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메시아의 부활로 선사될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을 향하여 용기를 잃지 말도록 권고하며, 가능하다면 사제는 장밋빛 제의를 입고 미사를 드리도록 권장한다.

그런데, 누가, 그리고 무엇을 즐거워하라는 것일까? 오늘 미사 전례의 시작을 알리는 입당송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 그를 사랑하는 아들아, 모두 모여라. 애도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으로 기뻐 뛰며 흡족해 하리라." (이사야 예언서 66,10-11) 우선 즐거워해야 할 주인공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예전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시온(Zion)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새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탄생하게 될 새로운 시온이다. 새로운 시온이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바로 제3이사야로 불리는 이사야 예언서 56장~66장에 잘 나타나 있다. 결국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주인공은 신약의 새로운 예루살렘, 바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들이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고 묻힘으로써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우리 자신들이 오늘 기쁨과 즐거움에 초대를 받은 것이다.

사순절의 40일이라는 기간은 속죄와 참회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하느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 합당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며, 장차 이루어질 중대 사건인 부활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기간이다. 그러기 위해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준비를 모두 일컬어 넓은 의미로 사순시기에 "재를 지킨다.", 또는 "재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재를 지킨다고 할 때는 대재인 단식과 소재인 금육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는 물론, 그저 외적이고 소극적인 준비에 해당한다. 본래 단식과 금육은 교회법규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던 것을 교회가 법규로 도입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재를 지켜 왔다. 예를 들면, 기도에 열중하기 위해, 죄를 보속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재를 지켜 왔다. 특히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사순절의 재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에 마음의 명상이 아니라 육체적인 재계로 동참하는 시기이다. 외적인 준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기쁨을 내적으로 충만히 받기는 어렵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순절이 부활절을 위한 어떤 준비로 엮어져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개별적 기도와 자선행위, 단식과 금육의 재를 지키는 것은 물론,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 기도, 사순특강, 사순판공성사, 가난한 이웃을 위한 사순애긍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백삼위 전례연구 위원회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루카 복음서에서 오늘 복음구절을 찾아보면 '되찾은 아들의 비유'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린 소신학생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정진석 추기경님이 그 당시 저희 반 담임 신부님이셨고 라틴어를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교재는 15세기의 독일 가톨릭 신학자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재해석하여 쓴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 오늘 복음 구절을 독해하던 중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갑자기 저희에게 "동구 밖에 나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지쳐서 돌아오는 작은 아들 중에 누가 먼저 상대를 알아봤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학생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을 읽어 주셨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이가 더 먼저 알아보았다." 에라스무스의 멋진 표현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이 복음 구절의 제목이 틀렸다고 합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라면 집 나간 아들이 주인공인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렇다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의 제목을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라고 써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 주신 마치 하나의 단편소설 같은 이 이야기는 신자든 비신자든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감동적입니다.

오늘 주일을 교회는 'Laetare(즐거워하여라) 주일' 이라고 부르고, 제대도 꽃으로 꾸미며, 사제의 제의도 장미색으로 합니다. 보속과 재계의 시기인 사순절에 이 무슨 일일까요? 오늘 미사의 입당송으로 이사야 예언서에서 인용된 "예루살렘아, 즐거워하여라" 라는 구절로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무시하고 돈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도 모두가 경제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제만 회복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어느 날 정신이 들 때 우리가 너무도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그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다시 아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꼭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회개의 사순절에, 그 중에서도 오늘 지금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 주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삶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참으로 '즐거워하여라. 주일'이 될 것입니다.

• 백남용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최진수 (에우세비오)	최숙 (글라라)
제1독서자	최태훈 (아우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오세원 (아타나시오)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토 남 2, 4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헌 (시몬)	이호미 (엘리사벳)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우경석 (요한)	모은기 (다두)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서용숙 (에스델)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지난 주간 합계: 798단 총 합계: 102,922단

◈ 사순절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을 위한 고통의 길에 주님과 함께 합시다.
- 사순 제4주간 금요일(3월 23일): 하버/칼슨 구역
- 사순 제5주간 금요일(3월 30일): P.V. 구역

※ 기도시간은 오후 7시30분입니다.

◈ 사순절 특강
- 3월20일(화): 구 마리아네 수녀
- 3월27일(화): 이 사피엔치아 수녀

※ 특강 시간은 오후 7시30분입니다.

◈ 사순 판공성사
- 3월28일(수) 오후 7시 참회예절, 7시30분 고해성사
- 주일학교 학생들도 함께 판공성사를 받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당/판공성사: 3월30일(금), 오후 8시

◈ 사순절 영상기도 피정
- 4월1일(주일), 낮미사 후 오후1시~3시, 성전
- 주제: 나의 가정 – 새로 발견하기
- 주관: 한국 성바오로딸수도회

◈ 한국 성모자 순교자 부조상 건립기금 본당신자 1인당 $6씩 오늘까지 사무실에 봉헌해 주시기바랍니다.

◈ 본당 울뜨레아 모임
- 오늘 주일, 오후 1시, 강당, 점심 제공

◈ 주일학교 사순피정 @ Crestline Retreat House

❖ 6~10학년
- 3월23일(금)~25일(주일)
- 출발: 금요일 오후 5시30분, 도착: 주일 오후 4시
- 준비물: 성경, 묵주, 가족사진, 필기도구, 세면도구, 침낭 따뜻한 겉옷

◈ 성 요셉 대축일 미사
- 3월19일(월), 오전 8시30분에 미사 있습니다.

◈ 평일미사 시간 임시변경
- 남가주 본당들의 사순판공으로 평일미사 시간이 변경됩니다.
- 3월 3째, 4째 주간 미사는 모두 오전 8시30분

◈ 부활맞이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 3월25일(주일), 점심식사 후
- 청소구역은 게시판을 참조하세요.
- 주관: 시설관리부, 소공동체부, 조경위원회

◈ 백삼위 본당 자문위원회의
- 3월26일(월), 오후 7시, 사제관

◈ 성삼일 전례 준비회의
- 3월27일(화), 사순특강 후, 강당
- 성삼일 전례 봉사자 (별도연락)

◈ 성서모임 안내: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 수요일 반: 오전10시30분, 강당
  금요일 반: 오전 10시, 강당 & 오후 7시30분, 강당
- 신청: 이복임 엘리사벳 (310)516-0818
-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 4월9일(주일), 오후 1시, Room 7
- 자격: 7학년 이상 모든 학생
- 참가비 : $1
- 신청마감: 3월18일(주일)
- 신청: 한국학교 사무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곽효식 김상근 김우용 김 욱 김원호 김인열 김종문 김종환 모은기 문두현 민상기 민소예 박동수 박영식 배태임 신경훈 신순철 안동훈 안연숙 오 진 유근우 육근주 윤석구 이경용 이민상 이일길 이재용 이효세 임 순 정규숙 정상봉 차인수 채양석 최진수 한소옥 홍성은 익명 **합계 : $4,710**	성전헌금	곽효식 김상근 김우용 김 욱 김원호 김인열 김종문 김종환 모은기 민상기 민소예 박동수 신경훈 신순철 안동훈 안연숙 유근우 육근주 이경용 이민상 이재용 이효세 정규숙 정상봉 차인수 채양석 최진수 익명 **합계 : $2,700**
미사헌금	$2,248.31	감사헌금	김숙애

공지사항

◈ **양업회 주체-메디케어 파트 D (Medicare Part D) 설명회**
- 오늘 주일, 오후 1시, 강당 • 강사: 김마틴
-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처방약 커버에 대한 설명회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백삼위 골프 대회**
- 3월24일(토), 오전 10시, Recreation Golf Course
- 크리스리 부동산에서 종합 선물 3세트 기증해 주셨습니다.

◈ **한국 성바오로딸수도회 도서선교 안내**
- 3월31일(토)~4월1일(주일)
- 내용: 신앙서적, 음반, DVD 전시판매
-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3월 18일: 하버/칼슨 2반 (수제비 $3)
- 3월 25일: P.V. 3반 (비빔밥 $3)

감사합니다.

◈ **모든 신자분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에 멕세코 과달루페 성지 순례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 **지난 주에 저희 본당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 김충용 그레고리오 & 윤명진 효주아네스 (토렌스 동 3반)
  자녀: 지민 페르디나도, 지온 요한

❖ 혼인공시 ❖

♡ 혼배 예정자: 김정혁 루이스 & 문영선
- 부모님 성함: 김상근 바오로 & 김여희 마리안나
  문화섭 & 김숙자
- 일시 : 5월19일, 오후 3시, 성당

♡ 위의 사람이 혼인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남가주 소식

◈ **한국어 혼인 강좌 신청**
- 4월14일(토) 오전 8시
- 신청마감: 4월2일(월) • 수강비: $50
- 성 제임스 성당, 강당
- 4651 Dunsmore Ave., La Crescenta, CA 91214
- 연락처: (818)248-0496, (818)926-9687

이번 주 단체 모임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 상임위원회	오후 1시, 강당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김양금 안나 518-3041 3/24(토) Field Trip (Flower Field Carlsbad)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3	정정숙 레아	정정숙 레아 791-5696
	4	권본경 율리아	형제반 1째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3째 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4	이은록 요셉 999-5677	이은록 요셉 999-5677
토렌스 남 김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2	임진희 한나 720-7898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차장) 938-3255	권병연 리디아 938-3255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차장)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908-5544 오늘 주일 오후 5시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6589
P.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클라라	
	2	김명재 아가다	
	3	진애경 욷리아나 541-5370	
	4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2007년 사순시기 담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요한 19,37)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요한 19,37). 이것이 올해 우리 사순 성찰을 이끌어 줄 성경 말씀입니다. 사순시기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법을 배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요한 19,25 참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당신 삶의 희생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회와 기도의 시기에 더욱 열심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해골 터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느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에서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형태를 강조하면서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 하느님 사랑: 아가페와 에로스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아가페라는 말은 오로지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른 한편 에로스라는 말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하기를 갈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분명 아가페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선 가운데 하느님께서 이미 갖고 계시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 인간의 모든 존재와 소유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사랑은 또한 에로스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모든 인간적 이유를 뛰어넘는 각별한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이러한 하느님의 열정을 간음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으로 대담하게 표현합니다(호세 3,1-3 참조). 에제키엘도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하면서 과격하고 관능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에제 16,1-22 참조). 이러한 성경 구절은 에로스가 하느님 사랑의 일부임을 보여 줍니다. 젊은 신랑이 신부의 승낙을 기다리듯,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이 "예"라고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그 시작에서부터 사악한 존재의 거짓말에 꼬여 넘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미망에 사로잡혀 하느님 사랑을 거부하였습니다(창세 3,1-7 참조). 스스로에게 갇힌 아담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에게서 멀어졌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히브 2,15)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아니오" 라는 대답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느님께서는 구원의 권능 안에서 당신 사랑을 드러내시기에 이르렀습니다.

2. 하느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십자가

하느님 아버지의 놀라운 자비는 바로 십자가의 신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피조물의 사랑을 다시 얻으시고자 외아드님의 피를 값비싼 대가로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첫 아담에게 외로움과 무력함의 궁극적 표징이었던 죽음이 새 아담에 와서는 사랑과 자유의 지고한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증거자 막시무스 성인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죽으셨으므로, 말하자면 신적인 죽음을 맞으신 것입니다." [「다의론」(Ambigua), 91, 1956].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에로스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로스는 참으로 위 디오니시우스가 말하듯이 "사랑에 빠진 이를 자기 안에 머물러 있도록 두지 않고 사랑하는 이와 하나가 되도록 재촉하는" 힘입니다[「하느님의 이름들」(De divinis nominibus), IV, 13, 「그리스 교부 총서」(PG) 3, 712].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 죄의 결과를 몸소 받아들이면서까지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신 것보다 더 "열렬한 에로스" [니콜라오스 카바실라스, 「그리스도 안의 삶」(Vita in Cristo), 648]가 또 있겠습니까?

◆ 바티칸에서 / 2006년 11월 21일 / 교황 베네딕토 16세

☞ 다음주 계속